최악 불경기 극과극 유통가

지역 백화점 패션·명품전 인산인해
신세계 매출 17.5%·롯데 8.7% ↑

30일 오후 광주지역 한 백화점 해외 명품관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결혼과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시즌특수 덕분에 고가의 해외 명품과 유명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덕분이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 옷가게에는 월요일인 탓도 있었지만 찾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광주지역 유통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해외 명품은 잘 팔리고 있지만 중소상인들은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다.

광주신세계에 최근 지역 백화점의 5월 매출이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명브랜드의 인기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가정의 달의 맞이하여 다양한 테마의 행사 및 이벤트를 기획·진행한 결과, 해외 유명브랜드의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7.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광주신세계 백화점 전체 매출 신장률이 1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실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5월은 결혼(혼수),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시즌특수의 영향이 작용했다"며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시즌종료(재고 소진) 시까지 단계별로 해외 유명브랜드 시즌오프에 돌입한다. 각 층 본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해외 유명브랜드 시즌오프에는 연중 세일을 하지 않는 '버버리', '페라가모', '자딕앤볼테르', '바네사브루노', '아르마니 꼴레지오니', '마쥬' 등이 참여해 올 시즌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진행된 최근 해외명품 시즌오프 행사에도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픈 시작부터 1층 명품관 앞에는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번 행사는 프라다, 미우미우, 버버리, 에트로 등 유명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참여하여 최대 50%할인했다.

이처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4월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지난해 4월보다 휴일이 더 늘었고 할인 행사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3%, 1.7% 증가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8.6%), 남성 의류(6.0%), 여성 캐주얼(4.8%) 등 거의 모든 품목의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마트도 8.5%가 증가한 의류를 비롯해 가전(3.1%), 식품(1.8%) 등의 판매가 늘었다.

반면 중소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활동이 늘면서 소비자의 발길이 뚝 끊겼다.

충장로 옷가게 매출 15~40% '뚝'
식당·가전매장 업주 "10년간 최악"

광주시 충장로 A옷가게 업주는 "과거에도 5월에는 매출이 줄었지만 올해는 더욱 감소폭이 크다"면서 "봄 상품이 어느 정도 팔려야 여름상품을 준비하는 데 날씨가 더워져도 신상품 구입할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일대 옷가게 업주들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 5월에 15~40%가량 매출이 줄었다.

가전제품을 파는 곳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노트북과 컴퓨터 등의 판매가 늘어나는 2~4월이 지난 뒤 거의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B전자업체 관계자는 "지난 10년간의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올해가 가장 불경기인 것 같다"면서 "대부분 전자업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7.13 (-2.04)
- 금리 (국고채 3년) 1.50% (+0.04)
- 코스닥 692.06 (+0.52)
- 환율 (USD) 1191.80원 (+12.50)

광주 효천2지구 1만9000㎡ 입찰

LH, 순천·여수 등 보유 토지 매각… 내달 8·9일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건기)는 광주 효천2지구 단독주택용지 등 총 24필지 1만9000㎡를 추첨 또는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2필지(2823㎡)로 지구별로 보면 광주 효천2지구 2필지(510㎡), 광주 일곡지구 1필지(256㎡) 등이다.

또 순천 연향2지구 1필지(354㎡), 여천 돌산지구 1필지(184㎡), 여수 엑스포타운 7필지(1520㎡), 광주전남혁신도시 종교시설용지 1필지(2276㎡)도 추첨으로 매각한다.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광주 진월지구 교육·연구시설용지 1필지(2169㎡), 광주 첨단산업단지 일반상업용지 1필지(1071㎡), 광주 하남주단2지구 일반상업용지 1필지(551㎡) 등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715㎡), 여천 돌산 준주거용지 5필지(1110㎡), 대불 산업단지 근린상업용지 2필지(7870㎡)도 입찰한다.

매각 토지는 즉시 사용 가능하며 일부 토지는 고객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할부납부 조건으로 공급한다.

추첨·입찰 등의 공급과정은 LH 청약센터(http : //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한다.

다음달 8~9일 접수해 10일 추첨·개찰하며 계약체결은 다음달 14~16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토지판매부(062-360-3175, 317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 제조업체 신규고용 '정체'

韓銀 42곳 설문… "확대하겠다" 52.4%·"축소" 47.6%

호남권 주요 제조업체의 올해 신규고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42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결과 지난해 대비 신규고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업은 52.4%, 축소할 것이란 기업은 47.6%로 조사됐다.

신규고용을 지난해 대비 0~5% 정도 늘릴 것이란 기업은 40%, 5~10% 늘릴 것이란 기업은 8%, 10% 이상 늘리겠다는 기업은 2%였다.

신규고용 확대 이유로는 '직원 퇴사에 따른 지연감소분 충원'이 5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8.6%가 '회사 성장'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신규고용을 0~5% 감소하겠다는 기업은 32%, 5~10% 줄이겠다는 기업은 8%, 10% 이상 감소하겠다는 기업은 2%였다.

지난해보다 신규고용을 줄이겠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구조조정 등 긴축경영(33.3%), 경기 불확실성(33.3%) 등을 꼽았다.

이 지역 주요 제조업체들은 청년고용과 관련해 57.1%가 신규고용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지만 40.5%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층 구인 때 선호하는 직무는 사무직 39.1%, 조립·기능·기계조작직 39.1%였다.

청년층 신규고용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시기 지연, 고용 관련 제도의 경직성, 중장년층과의 일자리 경합을 주로 언급했다.

제조업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을 조기에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기업 맞춤형 교육, 고용의 경직성 완화, 지역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산 1번지 전남… 생산량 전국 절반

지난해 129만3000t 5년새 14.4% ↑ … 전복 점유율 80%

전남 지역 양식어업생산량이 최근 5년간 크게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전남의 어업생산 점유율이 지난해 47%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최근 5년간(2011~2015) 전라남도 바다의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어업생산량은 129만3000t으로 5년 전인 2011년 113만t보다 14.4% 증가했다.

전국대비 어업생산량 점유율은 2011년 41.2%에서 2015년 47%로 5.8%포인트나 높아졌다.

전국 점유율은 2011년 41.2%, 2012년 43.3%, 2013년 46.7%에서 2014년 44.5%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5년 47%로 올라갔다.

어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일반해면어업의 경우 2011년 18만4000t에서 2015년 13만4000t으로 27.2% 감소했다.

전국 점유율도 2011년 14.9%에서 2015년 12.7%로 2.2%포인트 낮아졌다.

주요 품종별로는 전국 대비 점유율이 59.5%인 참조기 생산량은 2011년 3만5610t에서 지난해 2만115t으로 43.5%나 줄었다.

전국 대비 점유율이 17%인 멸치 생산량도 4만8278t에서 3만2715t으로 32.2%나 감소했다.

반면 천해양식어업은 이 기간 93만8000t에서 115만2000t으로 22.8% 증가했다.

전국 점유율도 2011년 63.5%에서 2015년 69.7%로 5.9%포인트 높아졌다.

흰다리새우는 이 기간 1904t에서 4418t으로 생산량이 무려 132%나 급증했다.

전복류 생산량도 6785t에서 7035t으로 늘었으며, 전국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김류도 생산량이 2011년 25만7026t에서 지난해 31만3235t으로 21.9%나 많아졌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전남의 일반해면 어업 비중은 꾸준히 낮아지고 양식어업 위주로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어업생산량과 전국 점유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맞춤형 자산관리 ISA 출시

위험 분산 6개 포트폴리오 투자 극대화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이 내달 1일 '쏠쏠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임형'을 출시한다.〈사진〉

이 상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객별 투자성향에 적합한 맞춤형 모델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개별 종목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ETF 펀드 위주로 구성된 저위험형(2개), 중위험형(2개), 고위험형(2개)의 총 6개 모델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다.

광주은행은 상품 출시에 앞서, 임직원 대상 사전 전산 오픈을 통해 내부점검을 실시해 판매접점(POS)에서의 불완전판매요소 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으로 노력했다. 중·장기적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경력 15년의 펀드매니저 출신 전문 운용역도 영입했다. 특히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채널도 동시에 오픈해 지역적 제약을 초월한 판매망을 구축했다.

김경태 광주은행 WM사업부장은 "향후에도 광주은행은 IFA, 투자자문업 등 고객 니즈와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